SN 300자로 hip hot 섭취하는 스낵뉴스

# 안락사 캡슐 '사르코(Sarco)'

스위스에서 첫 안락사 캡슐 '사르코(Sarco)'의 사용이 곧 가능해질 전망이다. 안락사 비영리 단체 '더 라스트 리조트(The Last Resort)'는 수개월 내에 사르코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캡슐은 내부 산소를 질소로 대체해 저산소증을 유발, 사용자의 사망을 초래한다. 스위스는 조력 자살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어 사르코 사용에 법적 장애물은 없다.

사르코 사용을 위해선 의사의 정신 능력 평가가 필수적이다. 캡슐에 들어가 뚜껑을 닫은 후 사용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등의 질문을 받는다. 이후 "생을 끝내고 싶다면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라는 음성이 재생되고, 버튼을 누르면 30초 내에 공기 중 산소량이 급감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사르코 발명가 필립 니치케는 낮은 산소 수준을 두 번 호흡하면 방향 감각을 잃고 조정력이 떨어지며 약간의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의식을 잃고 5분 후 사망에 이른다.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버튼을 누르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

단체 대표 플로리안 윌렛은 많은 사람들이 사르코 사용을 요청하고 있어 곧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누가 처음으로 사용할지와 가동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자문위원 피오나 스튜어트 변호사는 평화롭게 생을 마감하려는 염원이 미디어의 서커스로 변질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스튜어트는 캡슐의 최소 나이 제한은 50세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18세 이상의 중환자가 있다면 굳이 나이를 기준으로 둘 이유는 없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안락사 캡슐의 사용에 대해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락사 캡슐 '사르코(Sarco)' Sarco 제공

버튼만 누르면 수초 내로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는 '안락사 캡슐'이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뉴시스

#SnackNews #안락사캡슐 #이주영기자 #박지은편집디자인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구글이 지난달 도입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제도를 국내서 철회했다. 폐지 사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인기 급상승 검색어는 구글 검색창을 클릭하면 볼 수 있는 자동 완성 설정 기능 옵션인데, 지난 2021년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은 여론 조작 등 부작용이 크다는 정치계 압박으로 '실검 서비스'를 중단함에 따라 '역차별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각 포털은 구글의 실검 도입이 자신들의 트래픽 경쟁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제주도·여수·통영 등 인근 섬 지역에서도 갤럭시의 신제품을 '하루 만에'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가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갤럭시Z폴드6와 Z플립6에 대한 드론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드론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지자체별 사전 구축된 드론 기기, 이착륙 존, 관제 시스템 등 드론 배송 인프라를 활용한다. 그간 선박 운항 여건 등으로 배송 기간이 약 7일 걸렸던 것과 달리 드론 배송 시 만 하루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삼성은 태블릿, 버즈, 워치 등 모바일 품목에 대해서도 도서지역 드론 배송을 확대한다.

'국지성 폭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폭우 알림을 받거나 대피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하면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 먼저 기상청 공식앱인 '기상청 날씨알리미'에서 '강수 알림'을 설정하면 내 위치의 실시간 강수량을 알려준다. 또 '구글 지도'는 재난 발생 시 대피 경로와 대피소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도로 침수나 교통 통제 상황도 실시간 파악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홍수알리미'는 실시간 강수량을 비롯해 홍수통제소에서 제공하는 홍수예보 발령 여부와 도로·철도 상황, 댐·보 방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나면 어김없이 달려오는 '렉카'처럼 '사이버렉카'는 조회수만 나오면 불을 켜고 달려든다. 일부 사이버렉카들이 유튜버 쯔양의 과거사를 약점 잡아 돈을 갈취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유튜브는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로 꼽히는데,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같은 형식의 온라인 콘텐츠 모두를 규제해야 해 과잉규제로 변질될 우려로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유튜브를 방송법에 편입하거나 뉴미디어를 포괄하는 미디어법 제정, 인터넷 실명제 및 준실명제 도입 등이 꼽힌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